

상업 기업으로서의 다타라 제철

18 세기에 이르러 다타라 제철소에서는 더욱 고도의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제련된 금속 대부분은 판매하기 앞서 더 높은 품질의 제품으로 정련(精鍊)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제철소들은 질이 낮은 철을 판매 가능한 고품질의 철 덩어리로 만드는 대장간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이 설치된 시설이 바로 다카도노라 불리는 작업장과 오카지바(질이 낮은 철을 정련하여 판자 모양의 철을 만드는 작업장)였습니다. 커다란 다카도노에서는 무라게라고 불리는 기술책임자의 아래 작업원이 용광로를 조작했고, 원료를 제련하여 철이나 강철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공정이 끝나면 선철이나 질이 낮은 금속을 선별했고, 품질을 올리기 위해 대장간에서 정련했습니다.

대장간에서는 철을 다시 녹인 다음, 망치로 두들기며 탄소를 줄인 평평한 막대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평평한 막대기 형태를 일본어로 와리테쓰(割鉄, 깨기 쉬운 철) 또는 호초테쓰(包丁鉄, 식칼 같은 철)라고 불렀습니다. 정련된 철은 일본 전국으로 출하되었고 농기구와 조리기구, 화승총 등 여러 도구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렇듯 제련과 정련이라는 두 산업이 발달하면서, 오쿠이즈모 지방은 철 교역으로 일약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